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태 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시대 민화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소품 제작 연구

- 책거리를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안혜민

조선시대 민화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소품 제작 연구
- 책거리를 중심으로 -

박 태 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안혜민

인 준 서

안혜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조선시대에 활발히 그려진 회화의 한 종류인 ‘책거리’는 장식장에 귀중한 물건을 전시해놓은 모습을 그린 병풍으로 궁중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여 일반 서민층까지 애호하는 장르의 그림이었다.

책거리에는 그릇, 다기(茶器), 병과 같은 도자기 기물과 책갑, 소반, 문방구 등 생활소품이 주 소재로 등장한다. 이것들은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단순화 또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고대 미술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2차원적인 시각적 효과와 상징성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회화에서 볼 수 없는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책거리에서 볼 수 있는 2차원적 이미지의 특징을 소재로 삼아 일상의 생활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도자 소품 제작을 위한 이미지의 입체화 방법론과 제작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책거리의 2차원적인 이미지를 ‘전·후면을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3차원의 사물로 형상화하여 형상의 특징에 따른 기능과 장식성을 부여하였다. 입체적 형상화 작업에 있어서는 조선시대 백자편병의 전·후면에서 보이는 압축 면 또는 생략된 형태에 주목하여 편병 형식의 확장 형태를 표현 방법으로 삼았다. 생략과 확장을 통해 공간이 왜곡되어 압축된 듯한 느낌의 책거리 이미지를 편병이라는 기물의 압축되어 있는 듯한 조형적 특징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입체 조형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는 문헌을 통하여 책거리의 유래에 대해 고찰한 후 책거리의 이미지를 수집, 정리하였고 ‘연관성 있는 정물들이 조합된 형태’, ‘다시점(多視點)이 적용되어 왜곡된 형태’, ‘삶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정물의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하여 연구에 적합한 이미지를 선별하였다.

선별한 이미지에 대한 표현 방법으로는 앞서 기술한 편병의 조형적 특징을 접목하여 입체화하였으며 제작 기법에 있어서는 자유분방한 형태의 석고 원형을 제작하기 위해 압축 스티로폼을 이용하였고, 원형의 외곽 라인에 곡면 또는 직각 면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형상을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형상의 특징을 활용하여 화병, 다관(茶罐), 장식물로의 기능성을 부여한 결과 장식물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장식성을 더욱 부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색의 유약 조합과 금 장식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책거리에서 볼 수 있는 회화의 조형성을 모티브로 편병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입체화 과정을 구현하였고, 조형적 표현 수단과 장식품, 실용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 론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II. 본 론	3
1. 책거리의 내용과 유형	3
1) 책거리의 내용	3
2) 책거리의 유형	6
2. 편병의 조형적 특징	10
3. 책거리의 조형적 방법론	14
4. 제작방법	17
1) 소재의 선택 및 입체화 과정	17
2) 제작 과정	21
5. 시작품	27
III. 결 론	41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책거리의 유형	6
【표 2】 백자편병 측면 형태의 특징	11
【표 3】 백자편병의 측면 형태를 이용한 입체화 표현 방법	13
【표 4】 정물의 이미지를 이용한 입체화 과정	18
【표 5】 원형 제작 과정	21
【표 6】 시유 과정	22

그림 목차

【그림 1】 ‘전·후면의 확장’에 의한 정물 이미지의 입체화 표현 방법 ……	16
--	----

도판 목차

【도판 1】	4
【도판 2】	4
【도판 3】	5
【도판 4】	23
【도판 5】	23
【도판 6】	23
【도판 7】	23
【도판 8】	24
【도판 9】	24
【도판 10】	24
【도판 11】	25
【도판 12】	25
【도판 13】	25
【도판 14】	26
【도판 15】	26

시작품 목차

【작품 1】 작은 만병들 I	27
【작품 2】 작은 만병들 II	28
【작품 3】 염원을 담아	29
【작품 4】 하늘에 오르다	30
【작품 5】 그 행복	31
【작품 6】 나의 작은 우주	32
【작품 7】 풍요로운	33
【작품 8】 염원을 모아	34
【작품 9】 끝없는 이야기	35
【작품 10】 기운을 품다	36
【작품 11】 푸르름을 머금다	37
【작품 12】 추억이 반짝이다	38
【작품 13】 와유(臥遊)의 만병	39
【작품 14】 꿈 속의 생각	40

I. 서 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민화는 조선시대 민중들이 애호하던 장르의 그림 양식으로서 조선 후기에 농업과 상업의 발달과 부유층의 증가에 따라 그 수요와 제작이 증가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림의 내용은 대개 생활공간을 장식할 수 있는 소재 또는 서민의 삶을 그림으로써 민중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화의 종류에는 문자도, 소과도, 어해도, 영수도, 연화도, 호작도, 화접도, 장생도, 책거리, 신선도, 서수도, 목단도, 화조도, 기명절지도 등이 있다. 이 중 책거리는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하여 다기(茶器), 병과 같은 도자기 기물과 문방구 등의 생활소품과 고급예술품을 그린 그림이다. 이러한 양식의 책거리는 18세기 후반에 궁중회화로 유행하였으며 19세기 이후 민화의 형식으로 확산되었다.¹⁾

민화 형식의 책거리에서는 타 종류의 그림 양식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미적 조형성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사물이 의미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단순화하거나 과장한 표현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대상을 왜곡하거나 상징성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으로 나타난 책거리의 이미지는 독특한 2차원적 형상의 느낌을 준다. 이러한 느낌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3차원의 입체물로 형상화함으로써 현대의 미감에 부합하는 조형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책거리의 2차원적 형상의 조형성에 착안하여 입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고급

1)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 www. 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도자 소품 제작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를 통해 민화의 회화적 표현과 조형성을 이해하고 재인식함으로써 도자 조형 또는 도자 제품의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2차원적인 회화양식을 모티브로 3차원의 입체 형상화 과정의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도자 제품은 물론 예술성이 강조된 도자 표현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 책거리의 회화적 특징과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조선시대의 백자편병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적 특질을 파악하여 책거리의 2차원적 이미지를 편병의 특징을 이용한 3차원적 입체물로 표현하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물의 이미지와 편병의 측면에서 보이는 형태와의 대입을 통한 입체화의 결과물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의 책거리 그림 중 앞서 기술한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조형적 특질이 뚜렷한 정물 이미지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이미지의 입체화 작업을 위해 편병의 측면에서 보이는 기하학 도형의 형태에 주목하여 정물의 입체화 작업을 위한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도표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기능성과 장식성의 부가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여 제작 모델을 선정하였다.

시작품은 다양한 곡선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압축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원형을 제작한 후 슬립 캐스팅 기법으로 제작하였고 책거리에서 정물들을 다채롭게 채색하여 표현한 것에 착안하여 장식성을 높이며 정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기물에 다양한 색의 유약을 시도하였다.

Ⅱ. 본 론

1. 책거리의 내용과 유형

1) 책거리의 내용

책거리는 수요계층에 따라 궁중회화 양식의 책거리와 민화 양식의 책거리로 나눌 수 있다. 책거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을 중심으로 도자기, 문방구, 청동기, 과일, 정물 등 주로 생활소품과 예술 장식품이 담겨 있는 그림이다. 책가가 있는 궁중 책거리는 조선시대의 정조에 의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시작되었다. 정조는 문(文)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문을 진흥하기 위하여 책거리 그림을 장려하였는데 이는 중국 청나라의 회화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청나라 시대에는 궁중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다보각, 다보격 등의 장식장에 각종 진귀한 골동품을 전시해놓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다보각경’ 혹은 ‘다보격경’ 이라고 한다. 【도판 1】은 청나라 때 이탈리아 선교사 출신의 서양화가 낭세녕(주세페 카스틸리오네)이 전통적인 중국 화법과 서양 화법을 조화시킨 새로운 화법을 구사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 궁정에서 활동하면서 그린 「다보격경」이다. 【도판 1】을 살펴보면 책가에 가득 놓여 있는 도자기, 골동품, 책 등이 서양식 원근법과 음영법을 토대로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귀족들이 여러 진귀한 예술품과 다양한 서책을 수집하여 스튜디오로(studiolo)라는 작은 서재를 꾸민 것에서 비롯되어 서양식

회화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도판 1】 「다보격경」, 낭세녕, 18세기, 미국 플로리다 제임스 모리세이 소장

【도판 2】는 조선시대의 궁중화원(宮中畫員)에 의해 그려진 책거리이다. 중국의 책거리에 보이는 것처럼 음영법과 원근법을 적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판 2】 「책가도」, 이응록, 19세기, 10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후 책거리는 궁궐뿐만 아니라 상류층에서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점차 대중으로 확산되었다. 궁궐과 상류층의 저택을 장식하던 반듯한 책가에 규정

된 회화법으로 표현한 궁중 책거리는 궁중에서 민중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그림에 담긴 의미의 변화와 회화법에 따르지 않은 새로운 표현들이 나타나게 된다. 궁중 책거리는 길상의 뜻도 내포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뜻을 표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은 그림이었다. 점차 수요계층이 궁중에서 민중으로 확산되면서 서책보다 정물들이 주가 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길상의 뜻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중 책거리에서 민화 책거리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통해 화폭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책가가 없어지고 정물들이 궁중에 부유하는 듯한 비합리적인 모습과 정물의 부피를 고려하지 않고 쌓고 포개어 마치 공간이 압축된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의도에 따라 의미가 크지 않은 것은 단순화하고 유의미한 것은 과장해서 표현하였으며, 원근법과 투시도법 같은 회화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려 많은 형상들이 왜곡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판 3】의 그릇을 보면 밑면과 그릇에 담긴 과실은 정면에서 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그릇의 안쪽은 위에서 본 것처럼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정물에 다시점(多視點)을 적용하여 그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정물들에서 책거리의 수준 높은 회화성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물의 사실적 묘사와는 다르게 형상의 재구성을 통해 이미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도판 3】 「책거리」, 작자 미상, 19세기, 개인 소장

책거리 속의 소재 하나 하나는 독특한 조형성을 띠게 되며 새로운 조형 표현의 소재로서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류층의 기호와 서민들의 고급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인해 책거리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품격과 고도의 조형성의 가치는 크다고 생각된다.

2) 책거리의 유형

책거리는 1장에서 기술하였듯이 수요계층에 따른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책가의 유무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왕실과 특권층이나 부유층의 사대부가 향유했던 궁중회화 양식과 사대부와 서민들이 향유했던 민화 양식의 책거리에서 모두 책가가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가 존재한다. 변모하는 회화 양식을 통해 책거리 그림이 독자적인 회화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1】 과 같다.

【표 1】 책거리의 유형

유형	내용
책가가 있는 궁중회화 책거리	 <p data-bbox="536 1704 1235 1738">「책가도」, 작자미상, 19세기, 10폭,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책가가 있는 궁중회화 양식의 책거리에서는 서책만 가득한 모습과 서

책과 진귀한 정물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책가 주변을 장막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표현한 그림도 있다.

초기의 궁중 책거리는 주로 가득한 서책의 모습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 보통 어좌(御座) 뒤에는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나 십장생도(十長生圖)를 놓는 것이 관례인데 신하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책가도를 놓았다고 한다. 정조의 어좌 뒤에 놓였던 책가도 병풍의 모습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지만 위의 그림과 같이 책가에 서책이 반듯하게 가득 놓여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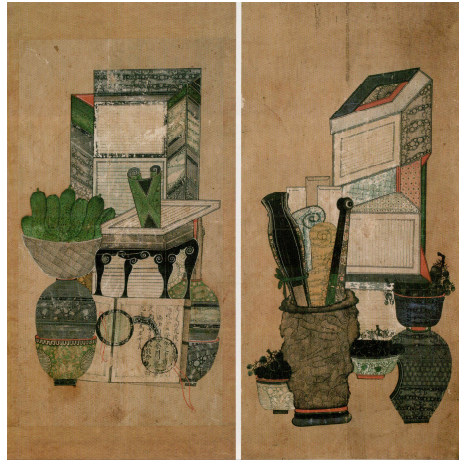


「책가도」, 이형록, 19세기, 8폭,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궁중화원으로 활동했던 이형록은 19세기에 활동한 화가로서 책거리에 매우 능하였으며 이용록(1864), 이택균(1871)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하였다. 책가에 서책과 각종 골동품, 도자기, 문방구, 꽃, 과실이 놓여있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그림이다. 책만 가득하던 책가도와는 다르게 진귀해 보이는 수입품, 고급 도자기들이 책과 같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와 고급문화에 대한 동경을 느낄 수 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원근법, 음영법, 투시법을 적용하여 그린 것을 볼 수 있다.

<p>책가가 없는 궁중회화 책거리</p>	<div data-bbox="491 360 1262 689" data-label="Image"> </div> <p>「책가도」, 이응록, 19세기, 6폭, 경산시립박물관 소장</p> <p>위의 병풍은 이형록이 이응록으로 개명한 뒤 그린 작품이다. 책가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 안에 있던 책과 진귀해 보이는 정물들이 분산되어 좁고 긴 화폭에 수직으로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으로 강조된 정물들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모습을 통하여 독특한 조형성을 볼 수 있다.</p>
<p>책가가 있는 민화 책거리</p>	<div data-bbox="732 1037 1023 1435" data-label="Image"> </div> <p>「책거리」, 작자미상, 19세기, 삼성미술관 Leeum 소장</p> <p>책가가 있는 궁중 책거리를 민화의 양식으로 재해석하여 그려진 그림이다. 책장의 각 칸마다 다른 공간을 표현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과일과 문방구, 안경 등 생활소품을 책보다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화 형식으로 그려지면서 화폭이 작아짐에 따라 정물들도 비현실적으로 축소하여 마구 포개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p>

책가가
없는
민화
책거리



「책거리」, 작자 미상, 19세기, 2폭, 일본민예관 소장

민화 양식의 책거리는 작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이상적인 내용을 담아 그렸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각 정물은 위치에 따른 시점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한 정물에 여러 시점이 적용되어 있다. 다시점으로 표현되어 좁은 공간에 쌓여있는 모습은 정물과 공간이 마치 압축된 것처럼 보인다. 비합리적인 구성으로 자유롭게 표현된 정물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과실의 특징을 과장하여 비현실적으로 표현한 모습에서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민화 책거리의 독특한 조형성을 통해 사람들의 소망이 길상의 뜻이 담긴 정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2. 편병의 조형적 특징

조선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백자편병은 특수한 형태의 자기로서 그 연원은 불명확하다. 그러나 금속기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백자편병 측면의 각진 형태를 살펴볼 때 중국 전국시대의 청동편병의 영향을 받아 금속기의 특징을 도자기로 번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 조선이 유교국가로 개창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의례기가 필요하였는데 금속원료의 부족에 의해 금속기 형태의 도자 제기를 제작한 것에서 백자편병이 유래된 것이라 추정된다.

동체를 압축한 형태의 편병은 휴대와 수납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실용적인 용도의 사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부장용, 의례용, 화병, 완상용 등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었다.³⁾

본 연구에서는 편병의 장식적 특성에 착안하여 기형별 분류를 통한 조형적 특징을 정리하고자 하며 특히 편병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형태적 특징을 도자 소품 제작에 있어 조형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2】에서 조선시대에 제작된 편병의 유형을 3종류로 분류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정원주, 2016, “조선시대 백자편병(白磁扁瓶)의 연원과 성격”, 『美術史學報』
3) 정원주, 2016, “조선시대 백자편병(白磁扁瓶)의 연원과 성격”, 『美術史學報』

【표 2】 백자편병 측면 형태의 특징







기물	측면형태	내용
 <p>백자상감초화문편병, 조선시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p>		<p>몸통의 전면과 후면의 경계면이 약간 급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하단부의 원뿔 형태와 상단부의 작은 원형이 조화롭게 표현되어 단아한 느낌을 준다.</p>
 <p>백자청화산수문사각편병, 조선시대, 경기도 박물관 소장</p>		<p>직육면체의 형태로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심플한 형태는 세련된 느낌을 준다.</p>
 <p>백자 편병, 조선시대,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p>		<p>정면에서 볼 수 있는 원형의 형태와는 달리 측면은 사각형이 약간 팽창한 듯한 형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변화는 신선한 느낌을 준다.</p>

조선시대에 제작된 백자편병들은 중국의 금속 편병을 모본으로 하였으나 제작 기법과 소지의 특성에 의해 중국과는 달리 독특한 조형 형태에서 부드러움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편병의 측면을 바라보면 단순한 직선 또는 완만한 곡선에 의한 볼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2차원적인 평면의 디자인을 3차원으로 입체화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면에서 보이는 편병의 이미지는 마치 공간을 압축한 듯한 명쾌한 느낌의 간략화된 선으로 나타나는데 측면에서는 기하학적 형태와 양감이 느껴지는 구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편병에서 볼 수 있는 ‘전·후면의 확장’은 평면적인 2차원의 이미지를 입체화하는 과정 또는 방법 제시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는 【표 2】에서 정리한 편병의 측면 형태를 기본형으로 제시하고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측면 형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에 곡선 또는 직선의 가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도형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조선시대의 백자편병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의 기본적인 형상과 응용형의 형상 6개를 선정하여 책거리의 소재로 사용된 정물의 입체화 과정에 적용하였다.

【표 3】 백자편병의 측면 형태를 이용한 입체화 표현방법

종류		측면 형태	내용
기본형	1		백자상감초화문편병의 측면 모습을 토대로 한 형태이다. 기물의 직립을 위하여 하단부를 절단하였으며 전·후면의 경계에서 보여지는 직선의 모습과 동체에서 볼 수 있는 곡선과의 조화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반듯한 사각형의 형태를 중심으로 양옆에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진 형태에 완만한 호를 그리며 양감을 나타내는 조형적 특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3		백자청화산수문사각편병의 측면 모습을 토대로 한 사각형 형태이다. 평면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확장하여 입체화한 듯한 형태적 특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응용형	4		기본형의 1번과 3번의 형태를 집목한 형태이다. 두 형태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 다시점이 적용된 정물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입체화 과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5		기본형 2번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양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앙의 사각형에 볼록한 곡선을 더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6		응용형 5번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중앙의 볼록했던 곡선을 오목하게 변형하여 전·후면의 곡선을 더욱 부각시켜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책거리의 조형적 방법론

책거리는 인간들의 본질적인 욕구와 염원 그리고 동경이라는 내재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정물을 그려 놓았지만 정물들이 품고 있는 뜻은 매우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사실적으로 표현된 정물들에는 단순화와 과장의 표현이 뒤섞여 있다. 다시점, 역원근법 등 독특한 회화 기법으로 인해 공간이 무시된 듯한 화폭은 소망이 가득한 이상적인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정물의 평면과 입체의 모든 모습을 담아 그 정물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다시점을 적용하여 표현한 형상을 보며 명쾌한 시각적 자극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민화의 책거리에서 볼 수 있는 2차원적인 형상에 독특한 조형성을 부여하였으며 각 소재의 개성적인 표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책거리에서 보이는 우수한 조형적 특질 외에도 정물의 소재에 내재된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책거리에는 일상적인 정물과 진귀한 예술품이 뒤섞여 배치되어 있는데 길상의 뜻을 품고 있는 정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품격과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당대의 최고 장인에 의해 제작된 정물의 조형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준 높은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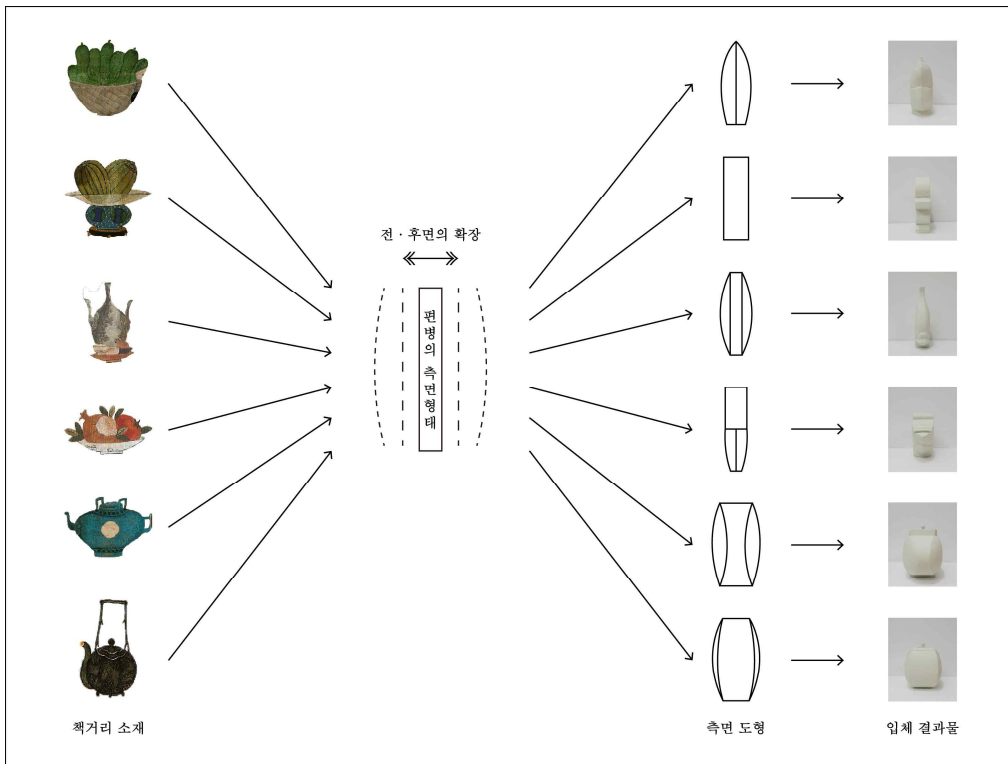
입체화할 이미지 선정에 있어서는 책거리에 등장하는 그릇, 다관, 잔 등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민화에서 나타나는 그릇이나 화병 등 담을 수 있는 형태의 용기(容器)를 가득 찬 병이라는 뜻에서 만병(滿瓶)이라 칭하는데 민화에서 병(瓶)은 경사스러움, 평화로움과 화평함을 뜻한다. 만병에 과일, 식물, 문방구 등 여러 정물이 담겨있는 모습은 평화로움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일의 껍질 안에 가득 차 있는 과육과 씨앗은 자손 번영,

다산, 장수 등 생명과 관련된 길상의 뜻을 품고 있으며 과실들은 본래의 모습과 유사하면서 단순화하거나 과장해서 표현한 모습이 많았다. 이처럼 과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그릇에 고이 담아 놓은 모습이 만병을 생명력의 근원으로 여기어 생명의 고결함과 행복하고 무탈한 삶에 대한 염원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었다.

이처럼 책거리에는 ‘간략화와 과장’, ‘구상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현실에 존재하는 정물과 비현실적인 공간 구성’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화면에 보기 좋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여 생활공간을 장식하는 소품으로 제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책거리의 정물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조형성과 다양한 가치에 착안하여 2차원의 그림 속 정물이 아닌 3차원적인 현실의 정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평면을 입체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논한 조선시대의 백자편병에서 볼 수 있는 조형성을 바탕으로 ‘전·후면의 확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입체화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에서는 책거리에서 나타나는 정물 이미지의 입체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전·후면의 확장’에 의한 정물 이미지의 입체화 표현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책거리를 중심으로 전술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총 17개의 정물을 선정하여 입체화 과정을 시도하였다. 입체화 과정은 【표 3】에서 정리한 조선시대 백자편병의 측면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도형을 각 정물에 대입하여 【그림 1】의 과정을 거쳐 입체물로 제작하였다.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도형의 대입을 시도하여 파생된 형상을 바탕으로 기능성을 부가하는 데 적합한 형태 또는 장식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별하여 정물의 입체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부분은 입체화의 과정에 있어 조형적 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기능성과 장식성에 따른 측면 도형의 선정에 따른 미적 느낌과 이미지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인간의 본질적 욕구가 내재된 책거리의 조형적 특징과 편병의 독특한 형태적 특징의 관계를 설정하여 2차원의 평면 소재를 3차원의 입체물로 구체화함으로써 장식적 기능은 물론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표현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제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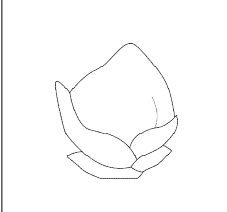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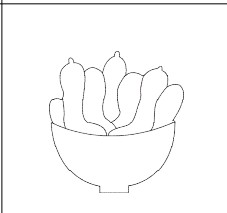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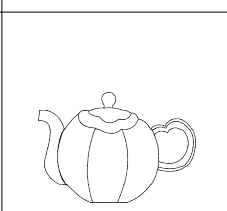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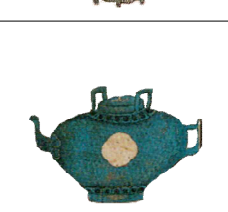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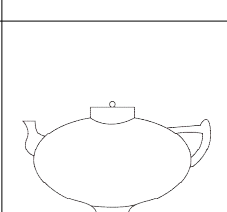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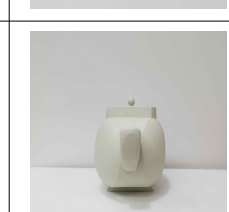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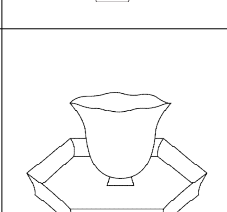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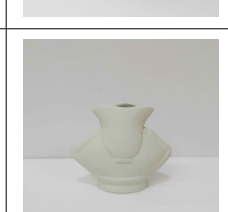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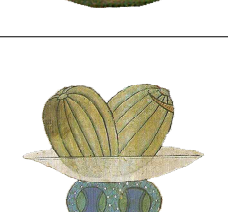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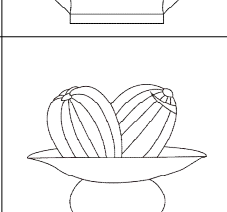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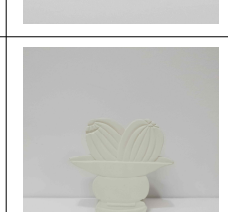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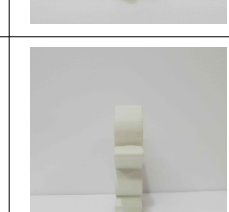
1) 소재의 선택 및 입체화 과정

과실이 그릇에 담겨 있는 정물을 주 소재로 삼고 이외에 조형적 표현이 강조된 병과 다기류 등의 형태를 선정하였다. 소재 선택을 위하여 조선시대 민화의 책거리 중에서 참고 도판에 기재한 12점을 선정하여 조형적 특성과 길상의 의미를 내포한 정물을 중심으로 입체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재의 입체화 과정에서 책거리에 나타난 정물 형태를 도자 소품의 제작 기준에 적합하도록 부분적인 형태의 변화와 기능성의 추가에 따른 형상 변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모사를 통한 이미지 표현을 지양하고 연구자가 정물을 보고 느낀 느낌을 직접 드로잉 한 이미지로 원형을 제작함으로써 연구자의 감정이입을 통한 이미지 변형을 시도하였다. 이런 시도를 통해 연구자가 추구하는 입체 조형의 형태적 특질을 부여하고 디자인에 있어 고유의 독창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정물의 입체화 과정을 담은 도표로서 책거리의 출처와 제작 과정을 통한 입체화의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4】 정물의 이미지를 이용한 입체화 과정

정물의 이미지	일러스트 이미지	제작 기물의 정면	제작 기물의 측면	정물의 출처
				도판 4
				도판 4
				도판 4
				도판 5
				도판 6
				도판 7

				도판 8
				도판 9
				도판 10
				도판 11
				도판 11
				도판 12

				도판 13
				도판 13
				도판 13
				도판 14
				도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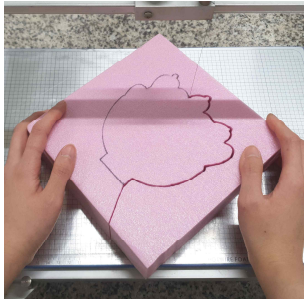


2) 제작 과정

① 원형 및 몰드 제작 과정

비정형의 자유로운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 압축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석고 원형의 큰 형태를 제작하였고, 원형의 세부적인 부분은 책거리에 나타난 정물 이미지의 평면성을 연구자가 재해석하여 조각하였다.

주입구를 기물의 바닥 부분으로 설정하여 몰드를 제작하였다.

【표 5】 원형 제작 과정

제작 과정			
설명	<p>열선 절단기를 이용하여 압축 스티로폼을 제작하고자 하는 원형의 외곽선 모양대로 절단한다.</p>	<p>절단 틈새로 석고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드 락에 잘 고정된 뒤 압축 스티로폼의 빈 공간에 석고를 주입한다.</p>	<p>압축 스티로폼에서 석고 원형을 분리한 후 조각하여 몰드를 제작한다.</p>

② 유약에 의한 장식 제작 과정

장식적 요소와 정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릇과 과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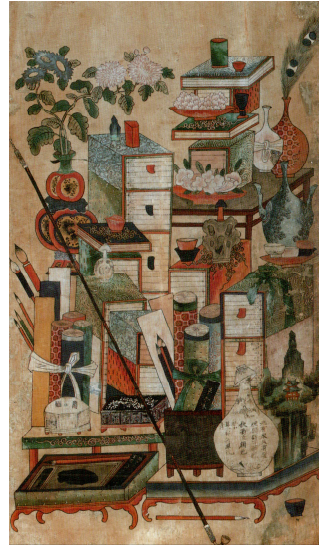
경계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유약으로 정물의 형태에 따라 이중시유 또는 삼중시유를 하였다. 의도하지 않은 면에 시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텍스를 사용하였다.

【표 6】 시유 과정

<p>제작과정</p>			
<p>설명</p>	<p>유약을 입히고자 하는 부분과 반대의 면에 라텍스를 붓으로 칠한 후 10분정도 건조한다.</p>	<p>라텍스 건조 후 유약이 라텍스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유한다.</p>	<p>라텍스를 제거하여 앞서 시유했던 부분에 라텍스를 칠한 후 시유한다. 라텍스 제거 후 시유된 부분의 경계를 다듬어 준다.</p>



【도판 4】 윤열수, 2000,
『민화 I』, 예경, p.326



【도판 5】 윤열수, 2000,
『민화 I』, 예경, p.327



【도판 6】 「책거리 8폭 병풍」 작자 미상, 19세기,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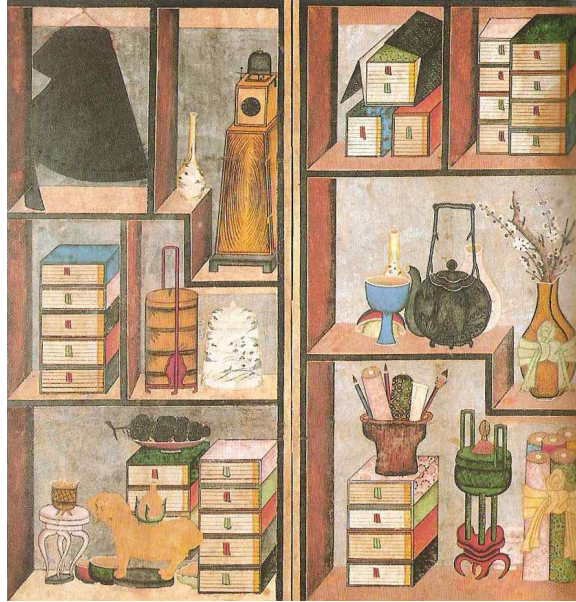
【도판 7】 「책거리 8폭 병풍」 작자 미상, 19세기,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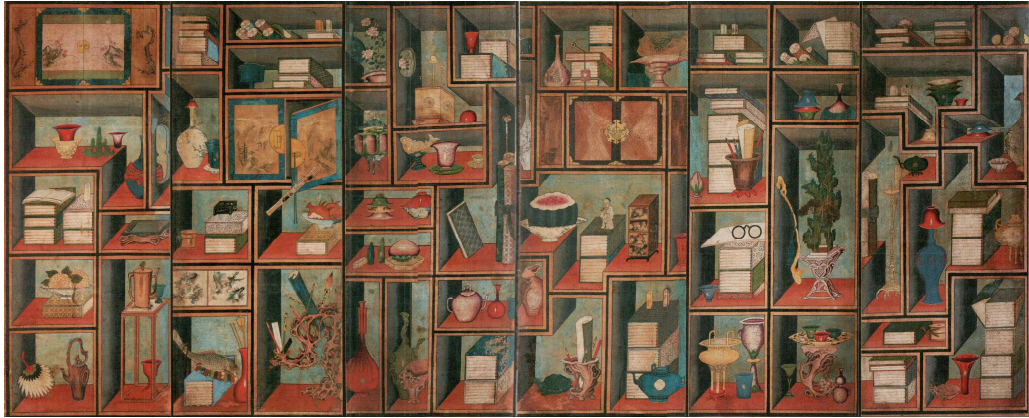
【도판 8】 「책거리」, 작자 미상, 19세기, 경기도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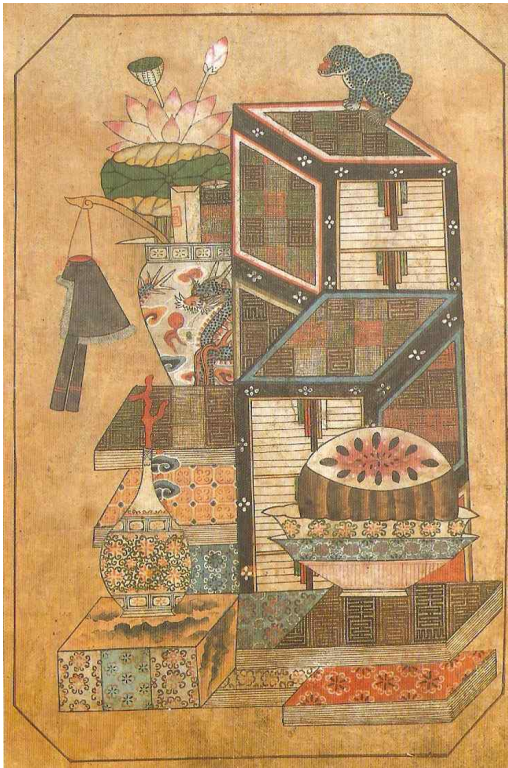
【도판 9】 「책거리」, 작자 미상, 19세기, 일본민예관 소장



【도판 10】 윤열수, 2000, 『민화 I』, 예경, p.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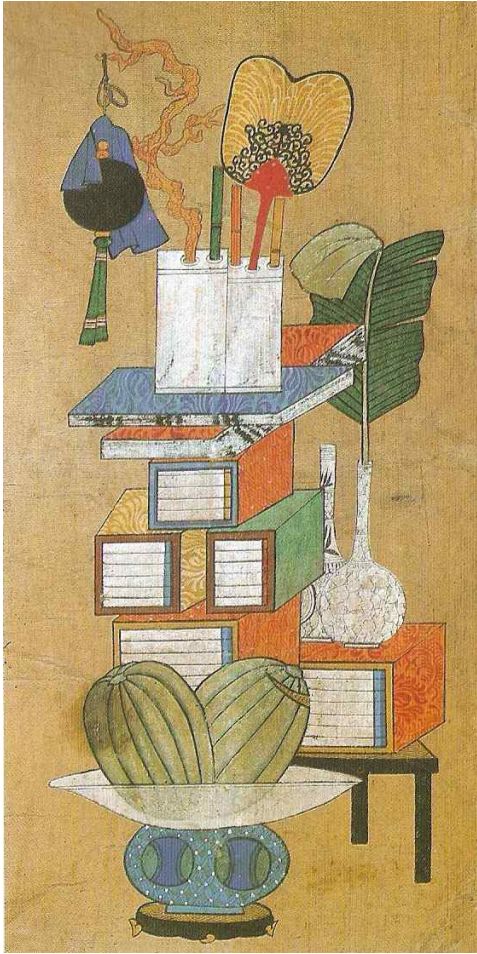
【도판 11】 「책거리 6폭」, 작자 미상, 18세기-19세기,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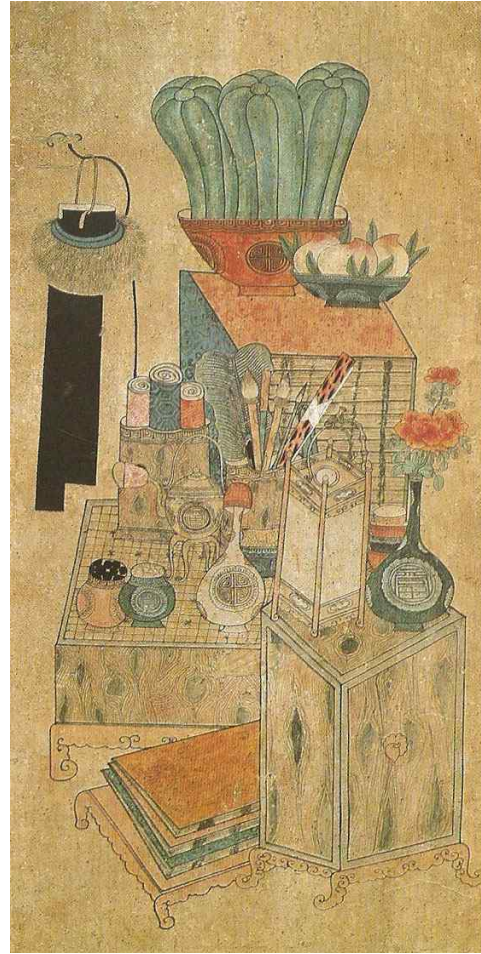
【도판 12】 윤열수, 2000, 『민화 I』, 예경, p.299



【도판 13】 윤열수, 2000, 『민화 I』, 예경, p.306



【도판 14】 윤열수, 2000, 『민화 I』, 예경, p.308



【도판 15】 윤열수, 2000, 『민화 I』, 예경, p.309

5. 시작품



【작품 1】 작은 만병들 I

슬립캐스팅, 백자, 수금, 1250℃ 산화소성

700×100×700(h)mm

제작 의도:

가지, 고추, 밤, 복숭아, 오이, 참외와 같이 길상의 뜻이 담긴 과실이 그릇에 담겨 있는 이미지를 밝은 분위기의 다양한 색의 유약으로 장식하여 작은 크기의 오브제로 표현하였다.



【작품 2】 작은 만병들Ⅱ
슬립캐스팅, 백자, 수금, 1250℃ 산화소성
700×100×700(h)mm

제작 의도:

【작품 1】 과 같은 주제를 표현하였고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유약 조합을 통하여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작품 3】 연원을 담아
슬립캐스팅, 백자, 수금, 1250℃ 산화소성
140×36×110(h)mm

제작 의도:

참외의 내부에는 많은 양의 씨가 들어 있어 자손번영과 장수를 상징한다. 참외가 잘려 과육이 보이는 듯한 이미지는 생동감을 더해준다. 생명력을 상징하는 씨앗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하여 백금으로 장식하였다.



【작품 4】 하늘에 오르다
슬립캐스팅, 백자, 수금, 1250℃ 산화소성
133×55×144(h)mm

제작 의도:

길죽한 모양의 오이는 자손번영을 상징한다. 그릇에 담겨 있는 오이는 과장된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릇에서 생명이 피어나 하늘에 오르는 듯한 모습을 통해 생명이 순환하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과실 부분의 유약 표현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생명의 유기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하얀 그릇 부분에는 오이의 단면의 모습을 점과 선을 이용해 패턴화하여 수금으로 장식해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작품 5】 그 행복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147×36×79(h)mm

제작 의도:

겉질 속에 과육이 알알이 박혀 있는 석류의 모습을 행복이 가득한 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과실 부분에는 조각이 잘 보일 수 있는 밝은 푸른색의 투명유를 사용하여 청량한 느낌을, 그릇 부분에는 짙은 푸른색의 결정유를 사용하여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릇 부분에 피어 있는 결정이 작은 씨앗처럼 보이면서 생명력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을 의도하였다.



【작품 6】 나의 작은 우주

슬립캐스팅, 백자, 수금, 1250℃ 산화소성

136×54×170(h)mm

제작 의도:

민화에서는 수박과 같이 과육 혹은 씨가 가득찬 과실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 과실의 껍질을 사각형 모양으로 파내어 과실의 내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선과 면을 이용해 기하학 도형들이 중첩되어 구성된 모습을 백금으로 장식하여 과실의 내부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작품 7】 풍요로운
슬립캐스팅, 백자, 수금, 1250℃ 산화소성
133×55×144(h)mm

제작 의도:

울동감 넘치는 잎사귀의 모양과 주렁주렁 달린 포도알의 모습을 통해 행복이 풍성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브제가 놓이는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다. 다복한 느낌의 포도알에 눈길이가도록 색을 조합하여 장식하였다.



【작품 8】 염원을 모아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140×36×110(h), 104×23×93(h)mm

제작 의도:

참외에는 씨가 많아 자손번영과 장수를 상징한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참외 오브제들을 구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9】 끝없는 이야기

슬립캐스팅, 백자, 수금, 1250℃ 산화소성

133×55×144(h), 100×42×110(h)mm

제작 의도:

과실이 살아서 숨쉬는 듯 자유분방한 형태가 돋보이는 2가지 크기의 오브제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흘러 움직이는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두 기물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오이와 같은 녹색 계열의 톤이 다른 유약을 과실 부분에 사용하였고 금장식을 더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11】 기운을 품다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137×81×104(h)mm

제작 의도:

측면과 윗면의 편평한 부분을 활용하여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편평한 면에 물대, 손잡이와 뚜껑을 붙여 다관으로 제작하였다. 전후면에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조각하여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이 나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12】 푸르름을 머금다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152×83×102(h)mm

제작 의도:

곡선을 강조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급하게 좁아졌다 넓어지는 곡선의 진행으로 양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책거리에 나타나는 다관의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다른 작업들과는 다르게 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작업하였다. 곡선의 느낌과 어울리는 은은한 색의 유약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13】 추억이 반짝이다
슬립캐스팅, 백자, 1250℃ 산화소성
169×76×99(h), 74×29×62(h)mm

제작 의도:

비정형의 곡선을 이용한 다관 형태의 오브제와 잔받침 위에 잔이 올려져 있는 평면적인 모습을 입체화한 잔 형태의 오브제의 구성을 통해 감상자의 동심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다관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성을 부여하였고, 잔받침 위의 잔은 작은 크기의 화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찻자리의 따뜻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은은한 느낌의 유약을 사용하였고 소중한 사람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담고자 하였다.



【작품 14】 와유(臥遊)의 만병
 슬립캐스팅, 백자, 수금, 1250℃ 산화소성
 각 180×65×181(h)mm

제작 의도:

책갑 위에 호리병과 과실이 놓여있는 이미지에 기능성을 부가하여 화병으로 제작하였다. 전면과 후면의 과실을 다르게 조각하여 한 점의 화병으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갑 위의 식물을 담을 수 있는 화병과 그릇에 담긴 귤과 수박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입체 정물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와유(臥遊)⁴⁾의 의미처럼 생활공간 속에서 공예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향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하였다.

4)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 www. 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으로, 집에서 명승이나 고적을 그린 그림을 보며 즐거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작품 10】 꿈 속의 생각

슬립캐스팅, 백자, 채색, 수금, 1250℃ 환원소성

각 49×21×101(h)mm

제작 의도:

그릇 위에 잔이 있고, 잔 위에 병이 있는 이미지를 통해 무언가를 담기 위한 기물들의 조합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릇에서 잔이 나타나고, 잔에서 병이 솟아오르는 듯한 이미지를 입체화하여 생명력이 순환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물의 표면에는 청화 안료와 수금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Ⅲ. 결 론

조선시대의 민화는 민중들에게 애호되던 장르의 그림이며 화제(畫題)에 따른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우리 회화사의 연구와 보존에 있어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의 미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제품 또는 예술품으로의 활용가치는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민화 중 책거리라는 화제를 연구주제로 삼아 그림에서 보이는 2차원적 이미지의 정물을 입체화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3차원적인 형상물로 구체화함으로써 장식과 기능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책거리의 정물에 담겨 있는 조형적 특질이 인간들의 본질적인 욕구와 삶에 대한 소망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책거리의 비현실적인 구도와 형상적 특징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조형성을 통해 디자인 또는 예술 분야의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백자편병에서 보이는 압축과 확장의 느낌에 착안하여 정물의 2차원적 이미지에 ‘전·후면의 확장’이라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책거리에서 나타나는 정물 이미지의 입체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편병의 측면에서 도형처럼 보이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변형함에 따라 다양한 형상적 특징과 이미지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선시대 백자편병의 측면 형태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도형의 이미지를 정리하고 책거리의 정물 이미지에 대입하여 입체화하는 과정을 도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차원에서 느껴지는 형태적 특질을 유지하며 입체물로의 공간감을 연출하여 새로운 조형물 또는 제품 제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체화 과정은 다양식의 회화는 물론 모든 2차원적 이미지의 입체화 과정에 적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입체화의 결과물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전·후면의 확장’을 이용한 형태에 대한 연구를 보강하여 다양한 양식의 회화를 소재로 한 도자 입체 조형물 제작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학술지 논문>

- 정원주, 2016, “조선시대 백자편병(白磁扁瓶)의 연원과 성격”, 『美術史學報』

<단행본>

- 윤열수, 2000, 『민화 I』, 도서출판 예경
- 정병모, 2017, 『민화는 민화다』, 다할미디어
- 정병모, 2011,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 강우방, 2018, 『민화 (한국 회화사 2천 년의 전통과 미래를 그리다)』, 다빈치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ABSTRACT

A study of Ceramic Objects Figuration using Imagery of Folk Paintings in Chosun Dynasty -focused on Chaekgeori-

Ahn Hyemi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Womem's University

Chaekgeori is a kind of painting that describes valuables in cabinet on folding screen. This genre was popular among people from upper class to commoners in Chosun dynasty.

Household items like dishes, cups, jars, bookcase, and stationary appear mainly in Chaekgeori. It differs from previous paintings in figurative characteristics by obviously showing two-dimensional visual effect and its symbolism found in ancient mural paintings using simplification or exaggeration rather than realistic expression.

In this thesis, a methodology for stereogram and its application would be proposed for a facture of ceramics which could be installed in a living space motivated by two-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Chaekgeori. A functional and decorative feature from shape could be applied using three

-dimensional figuration by expanding both front and rear view of imagery in Chaekgeori. The expansion of a white porcelain flat jar of Chosun dynasty is one of main concept in three-dimensional figuration process, which appears a compressed or omitted shape of view. A novelty three dimensional sculpture is to be presented by combining a flat jar as a metaphor with Chaekgeori in the view of compression of space or shape.

The origin of Chaekgeori is dealt with in the main issue through previous researches. The proper images are sorted out in terms of 3 aspects: combination form of associated objects, distorted form from multiple view points, and symbolic form of implicity for life in objects.

Selected images are expressed in three-dimensional form using figurative characteristics of a flat jar. As a method to produce, compressed polystyrene is used to make plaster cast of diverse form. Curved or steep plane is applied along the border of the cast to depict various shape. Conclusively, high potential of a decoration could be confirmed among vase, teapot, et cetera. Objects are glazed with various combination of colors and ornamented with gold to maximize decorative features.

Through such methods, it is not only implemented that objects compose three-dimensional form as shown in Chaekgeori motivated by figurative feature of paintings, but also confirmed that they have a large possibility of application as sculpture, decoration, and practical use.